

일본 대중 매체 속 아이누 민족 표상 연구

조영준**

가와고에 소이치의 『열원』과 노다 사토루의
『골든 카무이』를 중심으로*

초록 본고는 현대의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일본 대중 매체 속에서 재현된 아이누 민족의 표상을 분석하고 최근의 일본 작가들이 아이누 서사를 다루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우선 아이누 민족의 실존적 문제는 등한시되고 있고, 선주민의 미개한 전근대적 이미지가 고착화되고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아이누의 전통을 소개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역사적으로 이들의 전통을 소멸 위기에 처하게 한 책임 주체에 대한 비판성은 약하며 이와 관련한 어두운 역사적 배경에 대한 설명도 대부분 결락되어 있다.

해당 작품들에서는 일본과 아이누 민족의 삶에 밀착한 교류와 친밀한 관계가 부분적으로 제시되며 두 민족 간의 우호적인 이야기에 가려진 채 아이누의 삶의 터전과 전통이 훼손된 것에 대한 주체적 책임의식은 미미하다. 또한 작중 일본제국과 대칭점에서 다루지는 러시아제국 시대의 폭력성과 주변 민족에게 미친 악영향이 일본제국의 것 이상으로-혹은 그것을 대신하여-부각되고 있다. 여기에는 근대 동북아 침탈의 주체로서 일본제국의 실상을 후경화하고 아이누 지배가 근대에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게 함으로써 일본제국의 독자적 책임을 약화시키는 부분이 있다고 여겨진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간 민족을 다시금 현대의 문화 텍스트에 소환하여 대중적 관심을 불러모으는 것은 좋으나, 새로운 문학적 제재의 시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부재한 역사적 타자에 대한 서사화에는 보다 신중한 자세와 타자 중심의 사고가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아이누, 가와고에 소이치, 열원, 노다 사토루, 골든 카무이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B5A17056798).

** 나고야대학 일본문화학 박사

1. 들어가는 말

전 세계적으로 인적 자원의 이동과 이주가 잦아진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문화적 다양성과 세계화의 가치가 중시되고 있다. 일본 문단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듯, 여러 외국인 작가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문학상을 다수 수상하고 있다. 또한 기존 이민족 문학의 중심이었던 재일조선인과 오키나와인 등 일본 내 소수민족의 문학작품도 꾸준히 창작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과 궤를 같이하듯 그동안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홋카이도의 선주민인 아이누가 일본문학(문화)계에 등장하고 있다. 근대 제국의 세력 다툼 속에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희생된 아이누는 이후 일본으로의 동화와 거둬진 혼혈로 인해 지금은 그 수가 불과 얼마 되지 않는 민족이다.¹ 그동안 일본 문단에서 초대받지 못한 타자였던 아이누가 시대의 변화를 맞아 새롭게 호출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재일문학이나 오키나와문학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이들의 이야기는 당사자성이 없는 일본 작가들에 의해 구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본문화계에서 아이누를 그린 작품을 찾아보기 힘들었던 이유는, 아이누 민족에 대해 무관심했거나 혹은 일본과 얽힌 그들의 근대사를 다루는 것이 조심스러웠기 때문일 것이다. 그랬던 것이 2010년대 들어 아이누 민족이 등장하는 작품들이 잇달아 나오며, 이제는 바야흐로 아이누가 문화 관광 자원²을 넘어 일본인 작가에 의한 문학작품 혹은 문화 콘텐츠의 소

1 지영임과 우에다 히로아키의 논문에서는 아이누 민족이 일본 전체 인구의 0.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지영임·우에다(2012), 「일본의 다문화공생과 아이누 정책」, 『민족연구』 49, 한국민족연구원, p. 65], 여기서 참고로 삼은 자료가 홋카이도 아이누협회에서 2006년에 실시한 '아이누생활실태'이므로 15년 이상 시간이 지난 현재는 그 비율이 더욱 줄어들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남궁철의 논문에 따르면 이미 "1950~60년대 홋카이도에서 선주민 문화는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었"다고 한다[남궁철(2018), 「사할린 선주민의 전후(戰後) 이동과 탈식민의 문제: 율타 겐다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학림』 41, 연세사학연구회, p. 230].

제가 되고 있다. 이는 2000년대 들어 다문화공생을 표방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정책 및 사회 분위기와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즉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지닌 작가들이 활동하며 문화적 스펙트럼을 넓힘으로써 일본문학 또는 대중문화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는 문단 혹은 문화계의 현 상황과 연동되고 있는 모양새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본 연구자는 일본에서 화제를 불러 모은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일본 대중 매체 속 아이누 민족의 표상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작품은 가와고에 소이치(川越宗一)의 『열원』(熱源, 2019)과 노다 사토루의 『골든 카무이』(ゴールデンカムイ, 2015~2022)³다. 이 작품들은 아이누를 소재로 한 소설과 만화로 동시대에 출판 혹은 연재되며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다.

우선 가와고에의 『열원』은 원고지 832매 분량의 장편소설로 제162회 나오키상을 수상하며 문단과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나오키상 선정 과정에서 나온 주요 선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다카무라 가오루는 “주제에 걸맞은 소설 형식이나 이야기를 풀어가는 구성”으로부터 “작가로서 충분한 재능을 느꼈다”고 말하고 있으며, 나카지마 게이코는, “이 소설은 무거운 소재를 때로는 유머러스하게 때로는 스틸 있게 이야기하며 독자를 사로잡는다”고 말한다. 미야베 미유키는, “품격마저 감도는 역사소설이지만 모험소설로도 흥미롭기 때문에 수상을 계기로 많은 젊은 독자에게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고 있다. 후보작 가운데 가장 독보적인 소설이었다고 평가한 하야시 마리코는, “인간에게 민족이란 무엇인가라는 대명제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자세”와 장편을 쓰는 작가의 역량을 높이 사고 있다.⁴

3 『골든 카무이』는 일본에서 2015년 새해 첫날 1권의 발매를 시작으로 2022년 7월 마지막 31권을 출간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한국에서는 2016년 6월 1권 발매를 시작으로 2022년 12월 말 31권까지 번역 출판이 완료되었으며 ebook은 2023년 2월 현재 30권까지 제작되어 있는 상황이다.

4 나오키상 선고위원들의 주요 선포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했다. <https://prizesworld.com/naoki/jugun/jugun162KS.htm>(접속일: 2023.2.4.).

나오키상 선평 외에도, 이토 세이코는, “본서의 테마가 훌륭하고도 흥미롭다”며 소설로서 『열원』이 다양한 삶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을 말한다.⁵ 무라카미 유키는, 작가가 본인이 접한 자료를 작품에 살리는 수완이 나오키상 선고위원들에게 인정받았음을 지적한다.⁶ 요시다 다이스케는, 두 주인공의 “삶을 담아내는 작가의 필치가 훌륭하다”며 독자의 심금을 울리는 이야기라고 감상(感想)을 전하고 있다.⁷ 이렇듯 일본 최고의 대중 문학상인 나오키상을 수상한 『열원』에 대해 문단에서는 찬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동 작품은 2019년 한해 일본 문학계에서 가장 뜨거웠던 소설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022년까지 2400만 부가 넘는 판매고를 기록한 『골든 카무이』 역시 2016년 ‘만화대상’(マンガ大賞)을 수상하였으며 한국 등 해외에서도 번역 출판된 성공작이다. 기무라 유키히코는 “이 만화의 존재는 농밀한 아이누 문화를 실증하는 역할을 다하고 있다”⁸며 작품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다카하시 유코는 “아이누의 비극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수렵민 아이누의 쿨한 라이프 스타일과 정신세계가 클로즈업되어 있다”⁹고 본 작품의 특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 외에도 다나카 요이치는 “홋카이도의 문화와 역사가 그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누 소녀가 등장”하는 『골든 카무이』를 활용하면 외부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

5 이とうせいこう(2019), 『熱源』書評 アイヌの人生軸に世界を見渡, <https://book.asahi.com/article/12767291>(접속일: 2023.2.4.).

6 村上由樹(2020), 直木賞の川越宗一氏「現代に通じる歴史小説」,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54448750W0A110C2BE0P00/>(접속일: 2023.2.4.).

7 吉田大助(2019), 「文明」の侵略、丹念に描く, <https://kadobun.jp/reviews/5pwawlsoudk4.html>(접속일: 2023.2.4.).

8 木村元彦(2016), 『『ゴルデンカムイ』『シュマリ』『天下御免』エンタメ作品でアイヌ民族を知る』, 『金曜日』24(32), p. 32.

9 高橋優子(2016), 「現代日本の福音(エヴァンゲリオン)(#22)野田サトル『ゴルデンカムイ』」, 『福音と世界』71(8), p. 58.

출하기도 하였다.¹⁰

두 소설은 일본 내 호평을 받으며 근대의 아이누를 다룬 중요한 작품으로 다뤄지고 있다. 다만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은, 아이누 민족과 관련된 이런 서사의 창작과 비평의 주체는 일본인이고 아이누는 작품의 소재와 소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일본 문단에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 비평은 쉽지 않은 주제일지도 모른다. 그래서인지 본격 연구나 심층적인 논의가 아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확고한 아이누인의 정체성을 갖고 비평계에서 활동하는 이도 찾기가 쉽지 않아 일본 문학과 대중의 일반적인 관점이 견지될 수 있었다. 그렇기에 제삼자의 시각이 더해진다면 보다 균형 잡힌 비평이 가능할 것이다.

아쉽게도 한국에서 아이누는 일본 홋카이도의 선주민 정도로만 알려져 있을 뿐 다소 낮은 대상이었고, 따라서 문화·사회학적으로도 연구가 적은 편이다. 이 두 작품을 포함하여 아이누를 다룬 일본인 작가의 작품에 대한 연구 자체 역시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아이누는 사실 조선인이 타지로 이주하고 정주하였던 근대사에서 피식민자로서의 아픔을 공유하고 깊이 연대한 기록이 있는 민족이기도 하다.¹¹ 냉혹한 변경의 역사를 지닌 머나먼 타자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밝혀두고 싶은 것은, ‘아이누’라는 존재에 거의 무지한 현대의 독자들에게 대중문화 매체를 통해 아이누를 알리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고, 이 과정에서 본 연구자는 많은 문헌조사를 거쳐 장

10 田中洋一(2020), 「北海道はゴールデンカムイを応援しています。スタンプラリー」による博物館を活用した北海道の観光施策(特集 観光と博物館(2)), 『博物館研究』55(2), pp. 11-14.

11 전근대부터 전후까지 아이누 민족이 홋카이도와 사할린 등지에서 조선인과 형성한 밀접한 관계와 동행의 역사에 대해 최근 국내에 소개된 연구로 석순희의 저서(『조선인과 아이누 민족의 역사적 유대』, 2019)가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증언 청취 자료를 중심으로 홋카이도나 사할린에 강제 연행된 조선인들의 가혹한 노동 현장으로부터의 탈출을 아이누인들이 적극적으로 돕고 함께 살아가기도 한 사실을 밝히고 있으며 아이누인과 혈연 관계를 맺고 그들의 문화를 계승한 조선인의 사례 등도 소개하고 있다.

대한 스케일의 작품을 발표한 작가들의 노력과 해당 작품들의 가치를 폄하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위치조차 거의 갖지 못한 민족적 소수자인 아이누가 다문화공생을 표방하는 일본 사회의 기초를 뒷받침하는 도구와 호기심 어린 대상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따라서 외부의 시각에서 이러한 최근의 문화계 현상을 바라보며 관련 작품들에 담긴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만이 아이누 서사화의 명암을 제대로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갖고, 본고에서는 가와고에의 『열원』과 노다의 『골든 카무이』를 같이 보며, 아이누의 전통과 풍습이 오늘날 일본의 대중 매체에서 어떻게 재현되어 소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역사를 다룬 문화 텍스트로 이들 작품의 내실을 비판적으로 논구할 것이다.

2. 작품에 나타난 아이누와 일본의 관계

『열원』과 『골든 카무이』는 주로 일본과 아이누 민족 사이에 얽힌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그 외에도 월타와 니브히 등의 북방 민족과 러시아가 간헐적으로 등장한다.¹² 그럼 우선 이 두 작품의 공통항으로 나타나는 일본과 아이누 민족의 작중 관계를 살펴본다.

이 작품들에서는 아이누와 일본의 오랜 교류와 특별한 우정이 부각되며 비교적 친밀한 관계성이 구축되고 있다.

『골든 카무이』로부터 다음의 장면을 인용해 본다.¹³

12 제정 러시아에 의해 조국을 잃은 폴란드인인 브로니스와프가 주요 인물의 하나로 등장하는 『열원』의 작중 세계에서는 러시아와 관련한 내용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변의 식민지 역시 역사적·공간적 배경으로 나타난다.

13 인용의 페이지는 번역본 ebook버전을 기준으로 한다. 참고로 원서에는 별도의 페이지 수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그림 1] 『골든 카무이』 4권, p. 47

부상당한 채 마을을 찾아온 일본군 병사였던 인물을 아이누인들이 따뜻하게 보살펴 주는 모습이다. 인용문의 대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들은 일본군의 강인함¹⁴을 칭찬하며 혈맹적 동료 의식을 보여 주고 있다.

『골든 카무이』에서는 주로 아이누인들의 입을 통해 일본과의 교류와 교역에 관한 사실이 수차례 언급된다. 또한 고래를 사냥해서 먹는 아이누와 일본의 유사한 전통을 거론하며 습성적 동질성을 부여하고 있다.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도시(삿포로) 주변 삼림의 결핍 상태에 대해 언급하는 장면에서도 “우리도 나무를 잘라 생활해. 일본인들처럼.”이라고 말하는 아이누인을 통해 생태계 파괴 문제에 있어서도 두 민족 간의 유사한 생활 방식을 끄집어내고 있다.

14 제7사단의 위용을 드러내는 『골든 카무이』처럼 『열원』에서도 아이누인과 일본 군인의 대화 장면을 통해 아이누인들도 출전한 홋카이도 제7사단의 활약상과 위세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열원』에서는 주인공 야요마네쿠프가 회상하는 어린 시절 치코빌로와의 대화를 통해 급변하는 외부 정세 속에 아이누가 직면하게 된 정치적 상황¹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치코빌로가 말하기로는, 러시아와 일본이 결정하고 가라후토(사할린)는 러시아의 것으로 정해졌다. 일본인들은 섬을 떠나지만, 아이누도 희망하는 자에게는 일본으로의 이주를 도와주게 되었다. 고기잡이 일이나 쌀을 통해 오랫동안 일본인과 친했기 때문인지 800명 이상의 아이누가 이주를 원했다고 한다. 섬에 남는 사람이 많기는 했지만, 대규모의 이주가 되었다.(『열원』의 텍스트 번역은 인용자에 의한 것임)

チコピロが言うには、ロシアと日本が取り決めて樺太はロシアのものとなった。和人たちは島から去るが、アイヌも希望する者には日本への移住を世話してくれることとなった。漁の仕事や米を通して長く和人に親しんでいたからか、八百以上のアイヌが移住を望んだのだという。島に残る者のほうが多かったが、大規模な移住となった。(『熱源』, p. 34)

제국의 영토 변화로 변경의 한복판에 놓인 아이누인의 시점을 빌려 아이누와 일본의 삶에 밀착한 교류와 친밀성을 드러내며 이주는 일본인과의 공생에 익숙한 아이누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것이었음을 제시하고 있다.¹⁶

이렇게 외세의 정치에 의해 새로운 땅으로 이주하게 된 아이누들이 새 거주지에서 일본인을 위해 일하게 된 것은 축약하여 담담한 어조로 서술하

15 1875년에 러시아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사할린·쿠릴 열도 교환 조약 이후의 상황을 가리킨다.

16 일본이든 러시아든 거주지 문제와 관련하여 식민지 피지배자에 대한 조치는 당사자인 선주민들 입장에서는 반강제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석순희는 사할린 아이누인들이 사할린이 러일전쟁 이후 러시아의 통치로 들어가며 홋카이도로의 이주를 강요(‘강제 이주’)당했다고 말한다[석순희(2019), 이상복 옮김, 『조선인과 아이누 민족의 역사적 유대』, 어문학사, pp. 146-147].

고 있다. 그보다 중점이 놓인 것은 “일본인의 구청에서 신세를 지며” 고향이 보이는 곳에서 익숙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아이누의 상황에 대한 설명¹⁷이며 새로운 땅에서 일본의 영향을 받아 변해 가는 아이누인의 생활상을 조명하는 대목을 보면 일본의 지배로 인한 혜택인 듯한 서술도 나타난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사로 마무리하고 있다.

야요마네쿠프가 아는 아이누의 생활에는 생업이라는 것이 없다. [...] 그러한 고대로부터의 아이누의 생활방식을 어느 샌가 받은 빼앗기고 받은 스스로 버리려고 하고 있다.

ヤヨマネクフが知るアイヌの生活には、生業というものがない。[...] そのような古来からのアイヌの生き方は、いつのまにか半ばを奪われ、半ばを自ら捨てようとしている。¹⁸(『熱源』, p. 38)

아이누가 자신들다운 삶(전통적 생활양식)을 포기해야 한 것, 그 원인에 대한 심각한 고민보다는 결과적인 책임의 절반을 아이누에게 떠넘기는 식으로 읽힌다. 책임의 절반의 자리에는 아이누의 아이들을 위한 학교 건설을 위해 기부한 일본인의 훈훈한 이야기와, 일본에 의한 철도 건설과 교육 등의 혜택을 받은 아이누인이 느끼는 문명이 가져다준 편리함과 필요성에 대한 절감으로 채워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아이누와의 긴밀한 관계성과 우정은 과대 제시되고 제국의 역사적·정치적 책임은 축소되고 있는 모양새이다.

17 뒤에서는 상황이 바뀌자 아이누를 위협한 일본인도 있었던 사실을 언급한다. 자극적인 장면과 흥밋거리 위주로 제작된 만화 『골든 카무이』보다는 아무래도 실제 인물이 다수 등장하는 역사소설 『열원』에서 제국시대 일본의 부정적 일면을 다소나마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소설의 성격에 비해 역사 인식이 충분하지 못함을 지적할 수 있으며, 일각에서는 작중 그려지는 역사적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18 『熱源』, p. 38.

3. 일본제국과 비/대칭점에 있는 러시아제국

이 두 작품은 19세기 중후반부터 전후로 이어지는(『골든 카무이』는 러일전쟁 직후까지) 폭넓은 시대적 배경을 설정하고 있고, 공간적 배경도 홋카이도에서 사할린 등지로 이어짐으로써 자연스럽게 러시아에 대한 내용이 빈출한다. 그렇다면 작중 또 하나의 근대 제국으로 등장하며 일본과 충돌하는 러시아는 어떻게 다뤄지고 있을까.

등장인물 중에 러일전쟁 참전 일본군 병사가 적지 않은 『골든 카무이』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도 남하를 멈추지 않은 러시아군의 탐욕스러운 행보가 그려진다.

사할린의 평화로운 한 마을에 나타나 어느 노부부의 딸을 납치한 러시아 군인과 딸의 무사 귀환을 기다리는 부부의 사연이 소개되며 러시아 정부에 대한 현지인의 불만 표출과 일본군에 협력하는 과정이 그려진다.

서로 다른 출신(아이누와 폴란드)의 야요마네쿠프와 브로니스와프의 인생사를 따라 서사의 두 중심축이 교호하는 『열원』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역사 서술이 더욱 풍부하게 담겨 있다. 브로니스와프가 아이누와 연을 맺게 된 계기의 시발점으로 황제 암살을 모의한 자들에 대한 인정사정없는 고문이 그려지고, 이에 연루된 브로니스와프도 사할린 유형¹⁹에 처해진다. 다음은 오랜 유배 생활로 파탄이 난 브로니스와프의 인생과 러시아에 대한 그의 증오가 전해지는 대목이다.

선고된 형기는 브로니스와프에게 사형보다도 더욱 가혹하게 느껴졌다.

19 러시아가 폴란드 죄수들을 개척지로 유형 보낸 역사는 길다. 석순희의 연구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미 1744년부터 폴란드 독립운동에 가담한 자들을 유형 죄수로서 시베리아로 보냈다. (『열원』에서 브로니스와프가 유형에 처해진 시대와 관련해서는) “1850년이 되자 러시아는 북 사할린 유형지로 죄수를 보내고 1869년에 사할린을 정식적인 유형지로 결정하였다. 1880년부터 1900년도에 이르는 20년간, 사할린에 보내진 죄수의 수는 3만 4,470명에 달하며 부락 수는 20여 개에 이른다.” [석순희(2019), pp. 144-145].



[그림 2] 『골든 카무이』 17권, pp. 157-158

사할린 섬에서의 징역형은 가혹한 개척 노동으로 알려져 있었다. 또한 15년의 징역형기가 끝나도 바로는 자유의 몸이 되지 못한다. 자활하는 유형 입식수로서 10년간 섬 내 정해진 장소에서 살아야 한다. 합쳐서 25년이 지났을 때, 자신은 45세가 된다.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기를 빼앗은 러시아 제국을 브로니스와프는 증오하며, (인생용) 빼앗긴 계기가 되었던 지난 가을을 다시 회상하고 있었다.

宣告された刑は、死刑よりなお過酷にブロニスワフには感じられた。

サハリン島での懲役刑は過酷な開拓労働で知られていた。また十五年の懲役刑期が終わっても、すぐには自由な身にはなれない。自活する流刑入植囚として十年間、島内の決められた場所に住まねばならない。合わせて二十五年を経たとき、自分は四十五歳になっている。人生で最も豊穡であろう時期を奪ったロシア帝国をブロニスワフは憎み、また奪われるきっか

けとなった去年の秋を思い返していた。(『熱源』, p. 95)

죄수들을 활용하여 극동지방을 개척하려고 한 러시아제국의 실정을 고발하며 과도한 형기 속에 엄청난 노동에 혹사당하며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내몰린 피식민자들을 조명한다. 러시아는 이들의 젊음과 인생 그리고 조국을 빼앗은 나라이다. 브로니스와프 일가도 고향을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으며 동포인 폴란드인들은 조국의 언어인 폴란드어의 사용마저 금지당한다. 이런 러시아제국으로의 강력한 동일화 정책과 비인간적 탄압이 서사의 전면에서 부각되고 있다.

이외에도 『열원』에서는 러시아군이 식민지에서 일삼은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행태가 여러 차례 제시된다. 제국의 횡포에 저항하고자 하는 폴란드 학생들의 항의 시위와 추도 행사마저 무차별적으로 진압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으며 아이누의 학교를 일방적으로 폐교시키고, 패퇴하는 상황에서는 일본군에게 넘겨주지 않기 위해 아이누 재물을 모조리 불태워 버린 러시아군의 만행을 드러낸다.

이러한 근대 러시아의 부정적인 면은 비단 정부와 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사할린에 거주하게 된 러시아인과 경찰에게서도 피식민자에 대한 부당한 처사와 차별적 시선이 나타나는 것이다.

사할린 섬의 선주민 길랴크는 새롭게 이주해 온 러시아 농민들과 끊임 없는 갈등을 겪게 된다. 토지 거래 때는 러시아의 글자를 몰라 불합리한 조건에 서명함으로써 자신들의 땅을 속수무책으로 빼앗기게 된다. 브로니스와프를 시점인물로 하여 비열한 러시아 농부들의 수법을 꼬집고 있으며, 문제해결에 손을 놓고 수수방관하는 경관들의 자세에 비판의 시선을 던지고 있다. 길랴크인에게 모욕적 언사(‘야만인’)를 일삼으며 수렵민족을 깔보는 러시아인의 우월적 시선을 드러내고, “태만하고 우둔한, 망해 가는 민족”이라는 멸시가 담긴 길랴크족에 대한 러시아인의 평가를 덧붙여 소개하고 있다.

다음은 후에 민속학자가 된 브로니스와프가 길랴크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이다.

양상이 달라진 것은 러시아인들의 입식(개척지에서의 생활)에 의해서이다.

개척을 위해 먼저 숲이 한쪽 구석부터 개간되며 불태워졌다. 강의 어장은 황폐해졌다. 얼마 되지 않는 섬의 거주 가능한 땅은 격증하는 인구에 압박을 받았다.

게다가 문명세계가 불러온 유혹이 길랴크들을 더욱 궁지에 몰아넣었다. 차나 설탕, 그리고 술은 이제는 길랴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되었다. 전통적으로 사용량이 적었던 소금의 수요도 늘었다. 활과 화살은 총과 총알, 화약으로 대체되었다. 모두 화폐로 구입하지만 지금까지 현금을 안겨 다준 흑담비가 사는 숲은 더는 없다.

숲을 잃은 길랴크는 더 많은 양의 물고기가 필요하게 되었지만, 어장도 러시아인들에게 계속 빼앗기고 있다.

한 번의 흉어가 이들을 한 해 동안 기아에 빠뜨릴 정도로 길랴크의 경제 기반은 취약해졌다.

様相が変わったのはロシア人の入植による。

開拓のため、まず森が片っ端から拓かれ、焼き払われた。川の漁場は荒らされた。少ない島の可住地は激増する人口に圧迫される。

さらには、文明世界からもたらされた誘惑が、ギリヤクたちをなお追い詰めた。茶や砂糖、そして酒は今やギリヤクになくてはならないものになっている。伝統的に使用量が少なかった塩の需要も増えた。弓矢は銃と弾丸、火薬に置き換わった。すべて貨幣によって購うが、これまで現金をもたらした黒貂の住まう森はもうない。

森を失ったギリヤクはより大量の魚が必要になっているが、漁場もロシア人に奪われつつある。

一度の不漁が彼らを一年に亘る飢饉に突き落としてしまうほど、ギリヤクの經濟基盤は脆弱になっている。(『熱源』, p. 139)

러시아인들의 이주와 이어진 개척에 의해 바뀐 길라크의 생활환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러시아제국의 일방적 개발 정책이 선주민의 삶의 터전에 휘몰아친 막대한 피해를 고발하고 있다.²⁰

이렇듯 근대 러시아의 야욕과 폭력적인 제상을 드러내고, 이에 대한 피지배 민족의 불만과 저항을 그리고 있지만, 일본제국의 그것에 대해서는 침묵 또는 소략화하고 있다. 러시아제국의 행태를 통해 식민지 확충에 열을 올리며 피식민자에 대한 동일화 정책을 추진해 간 제국주의 시대의 보편적 움직임을 제시함으로써 작중 상대적으로 폭력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일본제국의 어두운 면을 상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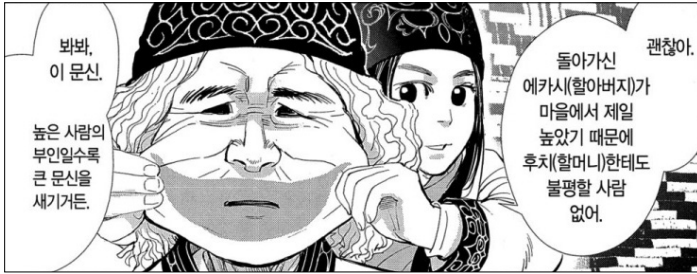
4. 아이누 민족의 이미지 표상

4.1. 얼굴 문신

이번 장에서는 작중 아이누 민족의 상징적 이미지로 부각되고 있는 요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우선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이 작품들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아이누의 전통 중 하나인 혼인한 여성들의 얼굴에 새겨진 문신에 대한 묘사다.

『골든 카무이』의 복수의 장면에서는 위와 같이 다소 우스꽝스럽게 아이누의 문신이 클로즈업되고 있다. 작품의 곳곳에 담긴 코믹스러운 요소로

20 근대의 일본제국이 아이누 거주지에 미친 영향도 이와 유사하다. 『열원』보다 앞서 나온 쓰시마 유코의 장편 『황금 꿈의 노래』(黄金の夢の歌, 2010)에서는 일본의 식민지 개발 정책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아이누인들에 대한 언급이 담겨 있다.



[그림 3] 『골든 카무이』 2권, p. 73

인해 캐릭터마다 우스꽝스러운 연출이 적지 않은 『골든 카무이』지만, 돌발적 행동과 익살스러운 표정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본인 캐릭터와 아이누의 이(異)문화 전통에 따른 외모의 희화화하고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고 여겨진다.

『열원』에서는 거의 집착적으로 보일 만큼 아이누 여인들의 문신에 대한 묘사가 잦다. 시점과 대상 인물이 바뀌어도 아이누 여인을 바라보는 작품세계 내의 시선은 문신 쪽부터 향해진다. 이와 관련하여 문신에 대한 묘사가 담긴 몇몇 문장을 발췌해 본다.

무심코 고개를 들었더니 커다란 귀고리를 매달은 옆얼굴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그 입가에는 문신이 없었다.

思わず顔を上げた目の前を、大きな耳環と整った横顔がすれ違っていった。その口元には入墨がない。(p. 215)

아내를 본다. 선명한 문신이 빛나는 아름다운 얼굴이 있고, 그 눈동자는 부드러운 빛을 남편에게 향하고 있었다.

妻を見る。鮮やかに入墨を光らせた美しい顔があり、その瞳は柔らかい光を夫に向けている。(p. 265)

바다표범 가죽 옷을 입은 아내가 아이를 업고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 입가에는 문신이 선명한 검푸른 빛깔로 빛나고 있었다.

アザラシの皮の衣を纏った妻が、赤子を抱いて佇んでいるのが見えた。その口元には入墨が、鮮やかな青黒さで映えている。(p. 301)

마차에서 뛰쳐나와 달리기 시작한다. 문신이 선명한 추후산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표정이 바뀌기도 전에 달려가 껴안았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돌아왔어”

아내의 가는 어깨가 떨리며 사랑스러움을 자아낸다. 더 세게 껴안으려 했을 때 묘한 감촉을 느꼈다. 자기도 모르게 몸을 떼고 아래를 봤더니 추후산마의 배가 불룩해져 있었다.

‘설마’

추후산마의 문신이 수줍은 듯 움직였다.

馬車から飛び出し、走り出す。入墨の鮮やかなチュフサンマが目を見開いている。表情が変わる前に抱き付いた。

「待たせてすまない、帰ってきた」

妻の細かい肩が震え、愛しさを掻き立てられる。より強く抱きしめようとした時、妙な感觸を覚える。思わず体を離して目を落とすと、チュフサンマの腹が膨らんでいた。

「まさか」

チュフサンマの入墨が、はにかむように動いた。(p. 302)

짐잖게 대답했더니, 노파는 색이 바랜 문신을 움직이며 “덕분에”라고 답했다.

しおらしく返事をする、老婆は色あせた入墨を動かして「おかげさまで」と答える。(p. 333)

손을 흔들며 말을 걸고 다가선다. 돌아본 아내의 입가에는 선명한 문신이 있다.

그 표정을 브로니스와프는 응시하고 있다.

手を振り声をかけ、歩み寄る。振り向いた妻の口元には、鮮やかな入墨がある。

その表情を、ブロニスワフは凝視している。(p. 388)

내뺨은 말이 적절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웃음을 되돌려주듯 여자의 문신이 조금 움직였다. 꿈틀거렸다. 웃음을 되돌려주려고 한 듯 보였다. (중략)

선언하듯 나는 말한다. 여자는 문신을 일그러뜨리며 “그럼 또 봐요”하고 손을 흔들었다.

言った言葉が適切かどうか、わからなかったが、笑い返してくれるように、女の入墨が少しだけ動いた。うごめいた。笑い返そうとしてくれたらしい。(…)

宣言するように、私は言う。女は入墨を歪めて「またね」と手を振った。(pp. 425-426)

아내와 떨어져 지낸 시간에도 브로니스와프에게 이민족인 아내에 대한 기억은 이미지 표상으로서의 문신으로부터 떠오른다. 사할린 섬에서 돌아온 브로니스와프가 아내와 재회하는 장면에서도, 이후 재차 이루어진 부부 재회의 순간에도 추후산마의 문신 형상이 반복적으로 드러난다. 이외에도 브로니스와프가 죽음 직전에 떠올린 것 역시 아내의 문신이며, 사할린의 오초포카 마을에 들어선 야요마네쿠프가 마주한 노파의 모습과, 과거 결혼을 한 적이 있는 이페카라를 통해서도 공간의 변동과 상관없이 문신은 작중 아이누 여인의 표식으로 작동한다. 이렇듯 작품의 후반부까지 등장하는 복수의 아이누 여성들의 반응과 표정을 묘사할 때마다 빈번히 얼굴에 새겨

진 문신이 강조된다. 치누아 아체베식으로 말하자면, 원주민성에 대한 고착을 드러낸 것으로 이러한 지나친 반복은 작가에게서 보이는 강박이라고 할 수 있다.²¹

사토 하루오나 오시카 타쿠 등 근대에 대만의 고산족을 그린 일본인 작가의 작품²²에서도 그들의 문신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었고 야만의 표상으로 다뤄졌다. 『열원』에서도 아이누인 야요마네쿠프가 배 속에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전통에 따라 문신을 한 추후산마의 무지와 위생 감각의 결여를 지적하며 학교 교육(근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장면은 얼굴에 새겨진 선주민의 문신이 여전히 미개 민족의 문화 표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거한다. 이처럼 이 두 작품에서도 선주민의 문신에 대한 근대부터 이어져 온 오랜 일본인 작가의 관심과 이미지 표상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4.2. 야생적 기질과 잔혹성

이 작품들—특히 아이누 민족의 의식주와 풍습을 다량으로 소개하고 있는 『꿀든 카무이』—에서는 아이누인들의 잔혹하거나 야생적인 기질이 드러나는 장면이 다수 등장한다.

21 아체베는 영국의 소설가인 조셉 콘라드의 『암흑의 속』에 담긴 서구인의 욕망과 욕구를 잃어내며 아프리카인을 묘사하는 문장에서 보이는 “검은”이라는 표현의 “무자비한 반복이 콘라드가 보이는 강박”이라고 비판한다[치누아 아체베(1999), 이석호 옮김, 『제3세계 문학과 식민주의 비평』, 인간사랑, p. 32].

22 근대의 일본사회에서 유통된 〈일본=문명/원주민=야만〉이라는 이항대립적 구도를 거부한 소설로 평가[대표적으로 簡中昊의 론(2013)]받기도 하는 오시카의 「야만인」(野蠻人)의 경우에도, 사카모토 사오리는 주인공 다자와(田澤)가 지인의 아내에게 깊이 감동받은 것은 그녀의 목소리를 매개로 발견되는 문신으로, 원주민의 문신은 ‘야만성’이 발휘된 대상으로 보고 있다[坂元さおり(2003), 「日本近代文学における〈ネイティブ〉の表象 | 大鹿卓『野蠻人』を中心に, 『プロブレマティックIV文学 / 教育 4』, 同人プロブレマティック, p. 70].

이와 관련하여 우선은 『열원』부터 살펴본다. 다음은 이오만테²³를 행하기 위해 마을에 잡아 둔 곰의 숨통을 끊는 역을 맡은 치코빌로와 축제를 즐기기 위해 모인 군중의 모습을 그린 장면이다.

곰이 일어선 순간 화살이 그 가슴에 꽂혔다. 찢어지는 듯한 소리를 내지 르며 곰은 쓰러지고 눈에 파묻혀 엉거주춤 돌지만, 이윽고 움직임이 멈춘다. 장로들이 달려가 확인한다.

“더 이상의 화살은 필요 없다.” 노인 한 명이 일어나며 쉼 목소리를 쥐어 찼다.

“훌륭하구나, 치코빌로.”

‘와’ 하고 함성이 터졌다. 남자들이 곰의 해체를 위해 모였다. 덩달아 여자도 아이도 소란을 떨며 모였고, 자리에는 환희와 흥분과 혼돈이 소용돌이쳤다. 사람들 틈에 낀 채 야요마네쿠프가 본 치코빌로는 씩스러움과 자랑스러움이 뒤섞인 얼굴을 살짝 상기시키고 있었다.

熊が立ちあがった瞬間、矢はその胸に突き立った。引き千切るような声を上げて熊は倒れ、雪に塗れてのたうち回るが、やがて動きを止める。長老たちが駆け寄り、確かめる。

「とどめの矢はいらぬ」一人の老人が立ちあがり、枯れた声を振り絞った。

「見事なり、チコピロ」

わあっという歓声上がる。男たちが熊の解体のために集まる。つられて女も子供も騒ぎながら集まり、場は歓喜と興奮と混沌が渦巻いた。もみくちゃになりながらヤヨマネクフが見たチコピロは、照れと誇らしさが入り混じった顔を、わずかに上気させている。(『熱源』, p. 33)

23 겨울에 동면 중인 새끼 곰을 잡아다 한두 해 정도 마을에서 기르고 축제일에 죽인 후 제사를 지내는 종교적 의례로 곰의 혼을 신(カムイ)의 세계로 돌려보낸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마을에 가뒀던 곶을 끌어내어 가까운 곳에서 활로 쏘아 죽이는데, 곶통스럽게 죽어가는 곶의 최후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이를 분해해서 나눠 먹는 아이누 민족의 전통 의식을 재구성하고 있다.

시각적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매체의 특성상 『골든 카무이』에는 이런 장면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골든 카무이』에서는 “귀와 코를 잘라내 추방시키는” 아이누의 형벌을 복수의 장에서 소개하고 있다. 마을에서 붙잡힌 일본인을 자신들의 방식대로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코와 귀와 “다리 힘줄을 잘라 불구로 만들어 추방하는” 아이누의 잔인한 형벌에 대해 언급한다. 형벌의 지역적 차이에 대해 말하며 “홋카이도 아이누는 코나 귀를 자르는 형벌이 있다”고 알려 주고, 절도범을 다스리는 가라후토 아이누의 형벌에 대해서는, 초범은 검지 첫 마디를 잘라내고, 다시 죄를 저지를 때마다 다른 손가락을 잘라”낸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정보 제시의 범위는 “눈을 바늘로 찌르고 바닥없는 관을 씌워 생매장하는” 가라후토 아이누의 잔인한 형벌에까지 이른다.

아이누 공동체의 잔인성과 야생성에 대한 제시는 성별과 연령을 떠나 다양한 개인의 행동 차원으로도 나타난다.

[그림 4]처럼 주인공의 한 명인 아이누 소녀 아시리파가 잔인하게 몽둥



[그림 4] 『골든 카무이』 7권, p. 65



[그림 5] 『골든 카무이』 10권, p. 189.

이로 동물을 때려잡고 분해해서 먹는 야성적인 모습이 그려진다.

후에 아시리파와 사랑의 전선을 형성하는 스기모토가 총으로 대형을 빼미의 눈을 맞춘 것을 한탄하는 아시리파에게 “미안. 눈알 빨아먹고 싶었어?”라고 묻는 장면은 일본인에게 전해진 아이누 소녀의 작중 이미지를 재확인시켜 준다. 사냥한 사슴의 간을 날로 씹어 먹는 소녀의 모습도 이와 같은 성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작은 체구와 귀여운 외모의 소녀 주인공으로부터 반전적인 잔인하고 야생성이 돌출된 일련의 행위를 그려 내며 이를 대자연에서 살아간 아이누인의 민족적 특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야생성과 잔인성은 아이누를 미개인으로 상대화하며 문명(일본)인과 대비되는 교화의 대상으로 세워진 성질로 원시성의 표상과도 직결된다.

관광의 장에서도 아이누가 호기심과 차별의 대상이 된 것은 아이누 민족의 ‘원시적’ 이미지로,²⁴ 그것이 잘 드러난 예가 ‘이오만테’라고 할 수 있다. 공교롭게도 두 작품에서 모두 다뤄지는 이오만테는 아이누가 있는 근대의 풍경을 그리고자 한 작가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선주민의 전통 행사로

24 조아라(2008), 「일본의 아이누 문화정책과 소수민족 정체성의 사회적 구성」, 『문화역사지리』 20(3),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p. 3.

보인다. 이오만테가 야만적으로 여겨진 선주민의 민족성을 보여 주는 전통으로 일본인들의 흥미를 끌며 상품화된 역사는 이미 오래다. 남궁철에 의하면 “선주민들이 꿈을 죽여 제사지내는 의식(=이오만테)은 1930년대 관광 기획”에 이미 활용되었다²⁵고 한다. 세계 5대 또는 3대 서사시로도 불리는 신요(神謠) ‘카무이 유카라’나 전통 무용 등 아이누 민족이 자랑하는 많은 문화유산 중에 이오만테가 선택되었고, 본질적인 제의(정신)보다 도살(행위) 묘사에 집중된 것은 가시화된 선주민 문화로서 아이누의 오랜 관광 코드와도 맞물려 있다.

그 외에도 『골든 카무이』 속 아이누 소녀 캐릭터 형상에서 돋보이는 전통 의상과 장신구, 활과 화살, 그리고 이를 이용한 사슴 등의 사냥에 있어서도 기실 일본과의 뗄 수 없는 역사적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이상봉의 논문에 따르면, “빠른 시일 안에 아이누를 화인처럼 보이게 하는 데는 그들의 몸과 관습을 바꾸는 것”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었기에 일본은 아이누의 “귀걸이, 이레즈미, 이오만테 등의 풍속을 금지”하였다고 한다.²⁶ “아이누의 활과 독화살을 금지하고 사슴 수렵을 제한한 것”은 이미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었다²⁷고 하는데, 19세기 후반부터 메이지정부는 이후의 동화를 목표로 이러한 일련의 정책을 시행하며 “수렵민족인 아이누에게 농경을 강요”해 온 것이다.²⁸ 익숙하지 않은 농경 생활에 내몰린 아이누인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채 결국 실존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²⁹

25 남궁철(2018), 「사할린 선주민의 전후(戰後) 이동과 탈식민의 문제: 윌타 겐다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학림』 41, 연세사학연구회, pp. 209-210.

26 이상봉(2014), 「국민국가 일본과 선주민족 아이누: 동화와 다문화공생 논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일본문화연구』 51, 동아시아일본학회, p. 330.

27 지영임·우에다(2012), 「일본의 다문화공생과 아이누 정책」, 『민족연구』 49, 한국민족연구원, pp. 64-81.

28 이상봉(2014), 「국민국가 일본과 선주민족 아이누: 동화와 다문화공생 논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일본문화연구』 51, 동아시아일본학회, p. 331.

29 이는 작품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아이누 민족을 둘러싼 숨겨진 역사적 배경이다. 일본의 문학세계가 망각해 온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전술한 것처럼 쓰시마의 작품에서는 드물

하지만 작품 속에서는 일본의 강압적인 민족 전통 금지령과 동화정책의 실상은 거의 드러나지 않으며 아이누가 관광 산업으로 활용된 것에 대한 언급 역시 찾아볼 수 없다. 현대사회에서는 보기 힘든 전근대적인 아이누 민족의 야생성과 자연적인 풍경의 묘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그 전통의 생활양식이 사라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접근과 성찰은 거의 혹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5. 나가는 말

본 연구에서는 화제의 문학작품을 위시로 일본의 대중 매체 속에서 재현된 아이누의 민족 표상을 분석하고 일본 작가들이 아이누 서사를 다루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작품들에 대한 문제의 소재와 비판의 지점을 다시금 정리해 본다.

우선 아이누의 실존적 민족 문제는 등한시되고 있고, 미지의 존재인 선주민의 전근대적 이미지가 고착화되고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두 작품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는 아이누의 이오만테나 여인들의 입가에 새겨진 문신에 대한 반복적인 묘사 등에서 선주민의 ‘원시성’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열원』의 서평을 쓴 나카지마 교코가 “입가에 새겨지는 아이누를 증거하는 문신 묘사가 가슴에 남는다”³⁰고 이야기한 것처럼 선주민의 얼굴 문신과 불곰을 죽이는 의식을 거행하는 축제인 이오만테는 현대 독자들의 관심을 끌 만한 요소다. 하지만 아이누의 문화는 작중 세계에서 근대 문명의 논리를 뛰어넘는 역동성이나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하기보다는 도

게 다뤄지고 있다. 이는 자민족과 선주민이 관계된 역사를 바라보는 작가적 시선의 차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30 中島京子(2019), 「文明」の侵略、丹念に描く, <https://allreviews.jp/review/3910>(접속일: 2023.2.4.).

살 행위의 잔혹함이 부각되거나 생존에 필요한 근대적 지식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며 박제화된 선주민의 전근대적 이미지를 재현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외에도 전반적으로—특히 『골든 카무이』의 경우—동물을 사냥하고 처리할 때의 잔학성과 야생적 기질이 다소 자극적으로 묘사된 대목들이 여러 군데서 발견된다. 물론 사라져 버린 아이누의 전통을 소개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이에 대한 클로즈업에 그치며 여전히 미개한 근대의 이민족 문화 표상에 가둬지고 있음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강렬한 묘사에 비해 더 중요한, 역사상 이들의 전통을 소멸 위기에 처하게 한 책임 주체에 대한 비판성은 약하며 이와 관련한 어두운 역사적 배경에 대한 설명도 대부분 결락되어 있다.

두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일본제국의 토지 수탈과 동화 정책의 사실은 소략화된 한편 일본과 아이누 민족 간의 동질성(문화적 연결고리)과 긍정적 관계성이 강조되며 역사 서술의 문맥에서 다소 편향적으로 가감의 방식이 취해지고 있다. 생사를 넘나드는 우정과 삶에 밀착한 오랜 교류 그리고 아이누가 받은 문명의 혜택 등 두 민족 간의 아름다운 이야기에 가려진 채 아이누의 삶의 터전과 전통이 훼손된 것에 대한 주체적 책임의식은 미미하기만 하다.

한편, 주변 식민지에 가해진 제정 러시아 시대의 폭력성과 아이누 세계에 미친 악영향이 일본제국의 그것 이상(혹은 그것을 대신해서)으로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는 근대 동북아 침탈의 주체로서 일본제국의 실상을 후경화하고 아이누 지배가 근대에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에 의한 것으로 해석됨으로써 일본제국의 독자적 책임을 상쇄시키는 부분이 있다고 여겨진다.

작품 속에서 발견되는 이런 다소 안이한 역사의식과 소재에 대한 취사적 관심은 작가와 편집자의 인터뷰에서도 그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골든 카무이』의 담당 편집자인 오쿠마 핫코우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한다. 그는 『골든 카무이』의 연재에 앞서 어떤 반응을 예측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연재 전에 작가와 편집자가 하나가 되어 결정한 것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작품으로 하자' 그런 각오만이 있었다"³¹고 답했으며 일본 내 '아이누 혐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자신은 그런 것을 언급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³²라며 대답을 회피했다. 아이누를 둘러싼 역사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적 물음보다는 신선한 작품의 소재로서 아이누가 채택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열원』의 작가 가와고에는 한 잡지와와의 인터뷰에서, "메이지 시대의 동화정책에 의해 아이누인들이 독자의 문화를 버리게 되었고 잊어버리게 된 것이 안타깝다"고 말하며 "그 쓸쓸함을 그리는 것이 『열원』을 쓰는 큰 동기가 되었다"³³고 밝혔지만 그런 의도가 충실히 전달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작가는 아이누를 그리는 데 의식한 것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약자로서 그리지 않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덧붙여 "그들을 약한 인간, 도움이 필요한 인간으로 그리는 것만은 절대로 하지 말자"고 생각했다며 그 "한편 '강자'라고 여겨지는 일본인이나 러시아인 측에도 빼도 박도 못하는 사정이 있다. 그런 것은 입장 상의 차이는 있더라도 '동등하게' 그리려고 강하게 의식하였다"³⁴고 말했다. 작가는 선주민에 대한 불필요한 동정을 삼가고 여러 상황을 고려하려고 한 듯하지만(물론 모두에게 저마다의 사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역사적으로 약자의 위치가 변하는 것은 아니고 근대세계의 역학 관계상 애초에 동등한 관계 설정도 불가능하다.

아이누를 그린 작품들과 일본 내 다른 소수민족 문학과와의 가장 큰 차이는 전술한 대로 서술과 제작의 주체가 비당사자라는 데 있을 것이다. 아이

31 木村元彦(2016), 『『ゴールデンカムイ』『シュマリ』『天下御免』エンタメ作品でアイヌ民族を知る』, 『金曜日』24(32), p. 32.

32 木村元彦(2016), 『『ゴールデンカムイ』『シュマリ』『天下御免』エンタメ作品でアイヌ民族を知る』, 『金曜日』24(32), p. 33.

33 有働由美子·川越宗一(2020), 「有働由美子のマイフェアバソン(15)直木賞『熱源』は“調べ癖”から誕生した」, 『文芸春秋』98(4), p. 357.

34 有働由美子·川越宗一(2020), 「有働由美子のマイフェアバソン(15)直木賞『熱源』は“調べ癖”から誕生した」, 『文芸春秋』98(4), pp. 358-359.

누가 오늘날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기 어려운 타자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작품의 창작 과정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물론 본문에서 간단히 언급한 바 있는 쓰시마의 예처럼 선주민(소수민족)과 얽힌 근대사에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성찰적 자세를 보여 주는 일본인 작가의 작품도 있는 만큼 창작 주체의 비당사자성이 해당 민족의 실존에 대한 고민 부재로 이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다만 본고에서는 보다 최근작이며 더욱 큰 대중적 영향력과 파급력을 갖는 작품들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다.

가와고에의 『열원』과 노다의 『골든 카무이』는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져 간 홋카이도의 선주민을 다시금 현대의 텍스트에 소환하고 대중적 관심을 불러 모은 점에서 일정 부분 그 문화적 의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더 많은 작가들이 아이누를 소재로 한 작품을 쓸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대 대중문화의 표현 범위를 확충하고 새로운 문학적 제재를 시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부재한 역사적 타자에 대한 서사화에는 보다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문학과 예술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타자 중심의 윤리적 사고와 비평의 관점이 요구되는 지점이지 않을까 싶다.

참고문헌

자료

- 노다 사토루(2016~2022), 『골든 카무이』 1~31권, 대원씨아이.
 川越宗一(2019), 『熱源』, 文藝春秋.
 津島佑子(2010), 『金の夢の歌』, 集英社.
 野田サトル(2015~2022), 『ゴールデンカムイ』 1~31卷, 集英社.
 이とうせいこう(2019), 『熱源』書評 アイヌの人生軸に世界を見渡す, <https://book.asahi.com/article/12767291> (접속일: 2023.2.4.).
 中島京子(2019), 「文明」の侵略、丹念に描く, <https://allreviews.jp/review/3910> (접속일: 2023.2.4.).

- 村上由樹(2020), 直木賞の川越宗一氏「現代に通じる歴史小説を」,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54448750W0A110C2BE0P00/>(접속일: 2023.2.4.).
- 吉田大助(2019), 「熱」の一語が物語に現れる時、登場人物を突き抜け、心が爆ぜる。: 川越宗一『熱源』, <https://kadobun.jp/reviews/5pwawlsoudk4.html>(접속일: 2023.2.4.).
- ALL OF NAOKI PRIZE(2022), 文藝春秋 / 文春文庫『熱源』, <https://prizesworld.com/naoki/jugun/jugun162KS.htm>(접속일: 2023.2.4.).

논저

- 남궁철(2018), 「사할린 선주민의 전후(戰後) 이동과 탈식민의 문제: 율타 켄다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학림』 41, 연세사학연구회, pp. 207-251.
- 석순희(2019), 이상복 역, 『조선인과 아이누 민족의 역사적 유대』, 어문학사.
- 이상봉(2014), 「국민국가 일본과 선주민족 아이누: 동화와 다문화공생 논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일본문화연구』 51, 동아시아일본학회, pp. 325-352.
- 조아라(2008), 「일본의 아이누 문화정책과 소수민족 정체성의 사회적 구성」, 『문화역사지리』 20(3),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pp. 1-14.
- 지영임·우에다(2012), 「일본의 다문화공생과 아이누 정책」, 『민족연구』 49, 한국민족연구원, pp. 64-81.
- 치누아 아체베(1999), 이석호 역, 『제3세계 문학과 식민주의 비평』, 인간사랑.
- 有働由美子·川越宗一(2020), 「有働由美子のマイフェアバソン(15)直木賞『熱源』は“調べ癖”から誕生した」, 『文芸春秋』 98(4), 文芸春秋, pp. 354-363.
- 簡中昊(2013), 「大鹿卓の『野蛮人』: 植民地時代における二元対立論への挑戦」, 『日本研究』 47, 国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 pp. 109-126.
- 木村元彦(2016), 「『ゴールデンカムイ』『シュマリ』『天下御免』エンタメ作品でアイヌ民族を知る」, 『金曜日』 24(32), 金曜日, pp. 32-33.
- 高橋優子(2016), 「現代日本の福音(エヴァンゲリオン)(#22)野田サトル『ゴールデンカムイ』」, 『福音と世界』 71(8), 新教出版社, pp. 58-61.
- 田中洋一(2020), 「北海道はゴールデンカムイを応援しています。スタンプラリー」による博物館を活用した北海道の観光施策(特集 観光と博物館(2))」, 『博物館研究』 55(2), 日本博物館協会, pp. 11-14.
- 齋藤美奈子(2019), 「世の中ラボ(115)北海道を舞台にした小説が熱い! 『凍てつく太陽』葉真中頭, 『熱源』川越宗一, 『土に購う』河崎秋子」, 『ちくま』 584, 筑摩書房, pp. 16-19.
- 坂元さおり(2003), 「日本近代文学における〈ネイティブ〉の表象 大鹿卓『野蛮人』を中心に」, 『プロブレマティックIV文学 / 教育』 4, 同人プロブレマティック, pp. 67-79.

원고 접수일: 2023년 1월 11일, 심사완료일: 2023년 1월 25일, 게재 확정일: 2023년 1월 31일

ABSTRACT

A Study on the Ethnic Representation of the Ainu in Japanese Mass Media

Jo, Young-joon*

Focusing on Kawagoe Soichi's *Netsugen* and
Noda Satoru's *Goden Kamuy*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critically analyze the representation of the Ainu people in the Japanese mass media and to review the methods used by current Japanese writers to narrate Ainu ethnic experience. The study argues that the existential problems of ethnic Ainu have been neglected and that outdated, 'savage' stereotypes of earlier generations have become ingrained. Although some previous representations have had the positive aspect of introducing the traditions of the Ainu, criticism of who bears the responsibility for the risk of the extinction of their cultural traditions is weak and there is a lack of a clear explanation of the background of this dark history. In related literary works, the close relationship and exchanges between Japan and the Ainu people have been partially demonstrated. However, despite the amicable stories of positive relations between the two cultures, a sense of responsibility for the damage done to the livelihoods and traditions of the Ainu has been lacking. In addition, during the early

20th century, the attention paid to the violence of the Russian empire and its harmful influence on neighboring nations, including Japan, has obscured the impact of the aggressive actions of the Japanese empire itself. This has arguably caused a dilution of responsibility within Japan for the domination of the Ainu, enabled by a conservative transformation of the realities of the Japanese empire through its representation as the subject of pillage in modern northeast Asia, interpreted through the ideology of imperialism that occurred globally during this period. While it is positive that contemporary literary texts are renewing public interest in this disappeared ethnic group, it can be argued that their approaches should move beyond experiments with new subject matter to engage with indigenous perspectives that adopt a more careful attitude to the narration of the historical experience of ethnic groups such as the Ainu.

Keywords Ainu, Kawagoe Soichi, *Netsugen*, Noda Satoru, *Golden Kamuy*

